2021년 신나는예술여행
지원심의 총평

2020. 12. 2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협력부

목 차

1. [종합] 심의진행 경과 및 심사평 ····· 1

2. [아동청소년] 심의진행 경과 및 심사평 ····· 6

3. [국민일반] 심의진행 경과 및 심사평 ····· 10

4. [특수] 심의진행 경과 및 심사평 ····· 16

5. [심의 통계] ····· 21

종합	2021년 신나는예술여행 심의진행 경과 및 심사평

ㅇ 지원취지 및 접수현황

<신나는예술여행>은 수요자 중심의 향유지원 사업으로,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국민의 일상 속에 다채롭게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2020년 한 해 코로나 19확산이라는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232억원의 예산으로 총 284개 예술단체가 전국 각지에서 5천여회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약 45만여명의 관객을 만났다.('20.11월 기준) 방문시설마다 거리두기를 하는 가운데 대규모 축제가 일부 취소되고, 또 일부는 비대면/온라인 형태로 진행하면서도 이룬 결실이다.

'21년도 공모도 올해와 같은 예산규모로 진행되었는데, 총 1,764건의 지원신청서가 접수(행정결격49건 포함)되어 두 달여의 심의 끝에 총 423개의 단체가 선정되었다. 독립적인 별도 공모로 시행한 전년도와 달리 '21년도 공모는 위원회 타 사업들과 함께 정시공모에 편입되어 진행되하였다. 분산 효과 때문인지 전년에 비해 지원신청은 약 600건 줄어들었다. 줄어든 지원신청 접수에도 불구하고, 선정은 '20년도(284건 선정)에 비해 150여 건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바뀐 사업 구조에 있다.

'21년도는 전년과 달리,

1) 예술단체가 관객과 시설을 직접 발굴하는 '기획형'과 '청년형'을 폐지하고 예술위 사무처에서 방문시설과 예술단체를 상호매칭하는 '매칭형' 방식으로 전면 변경하였다.

2) 또한 기존에는 단체 당 최대 20회(매칭형) 혹은 30회(청년형)까지 시설을 방문할 수 있었으나 '21년도부터는 단체 당 시설 방문 회차를 평균 10회 정도로 조정하면서 남는 예산만큼 선정 단체 수를 늘릴 수 있었다.

이렇게 변경한 목적은

1)' 목표 수요자를 정확히 분류하여 사업을 구획하고,

2)' 각 시설에 찾아갈 수 있는 단체 풀을 다채롭게 구성하여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좀 더 세밀하게 매개·유통 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었다.

'21년도부터 수요자 맞춤으로 사업을 개편한 결과는 아래 표를 참조할 수 있다.

2020년도 사업구조

구분	유형(장르 등)	추진방식
매칭형	연극	예술위 사무처에서 수요자 및 예술단체 상호매칭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문화일반	
기획형	농산어촌순회	예술단체가 방문장소 및 관객 직접 발굴
	지역자원연계	
	축제형	
	문학·시각	
청년형	일자리창출	
	사회문제 해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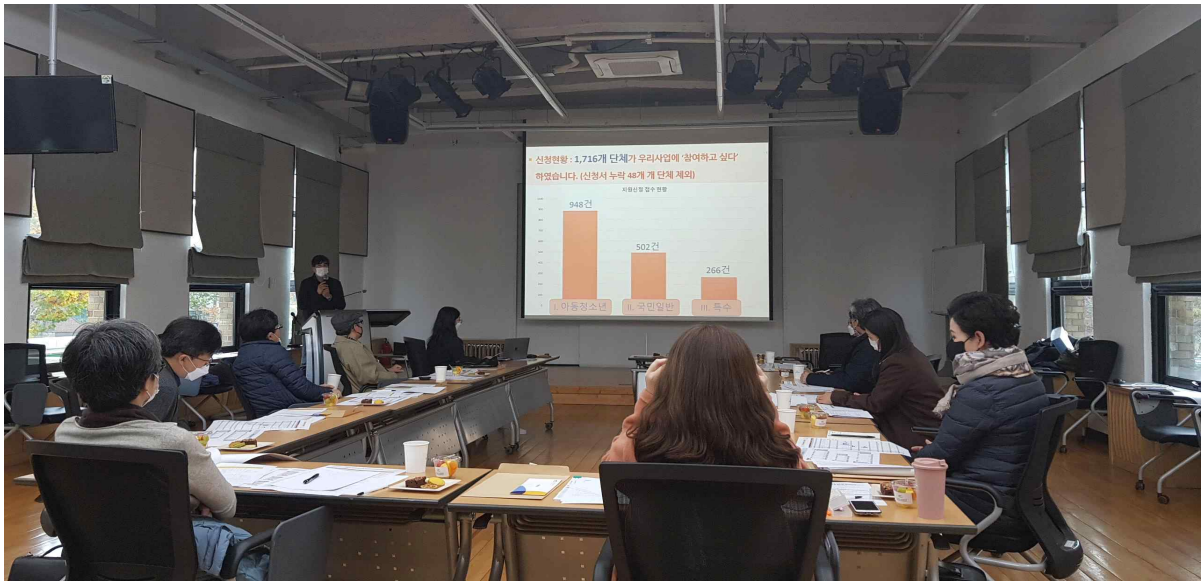
2021년도 사업구조

구분	유형(시설)	추진방식
아동청소년	아동복지시설	예술위 사무처에서 수요자 및 예술단체 상호 매칭
	청소년지원센터	
	장애인 특수학교	
	장애인복지관	
	초중고교	
국민일반	노인복지관	
	다문화센터	
	임대아파트	
특수	교정시설	
	군부대	
	하나원	
	병원	
	산업단지	

ㅇ 심의 방법 및 선정결과

올해 공모심의는 1. (심의전) **'심의위원 오리엔테이션'** 2. (자택심의) **'사전 전수검토'** 및 **'사전 온라인 채점'** 3. (심의당일) **'최종 심의회의'** 순으로 진행되었고, 최종 선정은 공모 공고문에서 사전 명시한대로 4. **'지역 선정비율 최소보장제'** 및 **'청년 쿼터제'** 반영을 준수 하였다.

1. 심의에 착수하기에 앞서 진행된 **'심의위원 사전 오리엔테이션'** 은 신나는예술여행 심의에서는 처음 도입한 것으로 심의에 임하기 전에 정확한 심의기준과 심의방향 채점방법을 안내하기 위함이었다. 그간의 심의는 심의회의 전 심의자료를 우편 등으로 전달한 뒤 심의회의 당일 논의를 통해 진행하다 보니 사전에 정확한 심의 방향과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과 채점조정으로 심의가 지체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이고 정확한 심의를 위해 취한 방안이었다.



[심의 오리엔테이션 현장]

2. 특히 올해는 심의회의 당일, 심의위원 각자가 사전에 자택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전수(全數) 검토보고서'** 와 **'온라인 채점' 결과를 최대한 수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전 오리엔테이션이 불가피하였다. '사전 전수검토제' 는 각 심의위원이 담당하는 심의건 전수에 대해 심의 항목별 채점과 그 근거를 심의회의 전에 보고서 형태로 서술하게끔 하는 제도이다. '사전 온라인 채점' 은 전수검토를 토대로 심의위원이 각자 예술위원회 심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점수를 입력하는 방식이다.

3. **‘최종 심의회의’** 에서는 심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정확히 숙지한 심의기준과 방법을 토대로 모든 심의위원이 각고의 노력으로 작성해준 전수검토의견과 채점결과를 놓고 다시 한 번 심의방향에 대한 중지를 모으고 특별히 선정에 문제되는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고평점 순으로 단체를 선정하는 데 합의하는 의결 절차로 진행되었다. 사전에 심의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심의회의에서는 개별 단체에 대한 토의 외에, 본 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제안이나 토의도 생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4. **‘지역 선정비율 최소보장제’** 는 지역불균형 지원 해소를 위해 수도권·비수도권의 신청률을 선정시에도 가능한 동등하게 유지하여 서울/경기/인천 이외에 소재하는 예술단체도 공모사업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되었다. 그 결과, <수도권 : 비수도권 = 6.5 : 3.5>의 신청비율은 선정 비율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청년쿼터제’** 의 경우, 회당 단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던 기존의 청년형 사업을 폐지하는 대신 청년단체가 자유로이 모든 유형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참여비율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 결과 전체 신청건수 대비 23.7%의 신청률을 조금 더 상회하는 25.1%의 청년단체가 선정되었다.

참고로 심의위원은 3개 유형사업에 맞춰 3개의 심의분과로 나누어 구성되었으며, 각 분과별로 7대 장르 위원 1명씩 총 7명으로 구성하였다. 섭외는 ‘202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온라인 심의위원풀’(https://pool.arko.or.kr/)에서 장르별 10배수로 무작위 추첨된 리스트를 가지고 지역, 성별, 신진 안배(심의별 최소 1인 이상)를 고려하여 위촉하였다. 그 결과 총 27명의 심의위원이 구성되었다.

[심의위원 구성 분포]

(단위 : 명)

구분	여성	*신진	**지역	총 인원
아동청소년	2	2	2	7
국민일반	2	2	4	7
특수	3	4	3	7
계/비중	7명(33.3%)	8명(38.1%)	9명(42.8%)	21명

* 신진 : 40대 이하
** 지역 : 주 활동지역이 서울/경기/인천 이외인 지역전문가
*** 여성이면서 신진 등 카테고리가 중복일 경우 각각 기재

각 사업별 주요 지원취지, 전년대비 변경 사항, 그 외 상세한 심의진행방식 및 결과는 이어지는 유형별 심의총평을 참고 바란다. 아울러 심의 선정과 관련된 각 종 통계는 본 심의총평 제일 하단에 첨부되었다.

I. 아동청소년	2021년 신나는예술여행 심의진행 경과 및 심사평

ㅇ 일시 : 2021년 12월 17일(목)
ㅇ 장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나주 본관 3층 대회의실
ㅇ 분야 :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문화일반
ㅇ 심의위원 : (문학)허병식, (시각예술)황정수, (연극)서연호, (무용)장승헌, (음악)전진찬, (전통예술)강혜진, (문화일반)양효실

○ 신나는예술여행 <아동청소년> 유형은 '아동복지시설(보육원)',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장애인 특수학교', '장애인복지관', '초중고교' 등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교육 및 거주시설에 예술프로그램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예산은 총 105억원을 배정, 195개 단체가 선정되었다. 신청서는 총 907건이 접수되었는데 970건의 신청 중 필수 제출 자료인 동영상을 제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23건이 행정 결격 처리되어 최종 심의건수는 947건이었다.

○ 신나는예술여행 아동청소년 유형 분과 심의는 심의위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예술위원회가 정한 심의절차와 공정심의 운영준칙을 설명 듣고 이에 대해 숙지한 뒤 심의회의 4주 전 사무처로부터 전달받은 지원신청서를 전수 검토하고 온라인을 통해 개별적으로 채점을 진행하였다. 이후 최종 심의회의에서 7인의 심의위원들의 사전 전수 검토 결과를 확인하고, 평점에 따른 순위를 확인하였다. 그 후 국민일반 및 특수유형 등 3대 유형 간 지원신청 현황, 수요자의 예상 규모, 평점한 결과의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종합 검토하여, 아동청소년 유형에 배정할 적정 예산 수준을 논의하였다. (아동청소년 심사일 이틀 전 이루어진 특수유형 심사에서 발생한 잔액 중 12억원을 추가 배정하였음). 아울러, 예술위원회가 정한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지역단체 보장제와 청년단체 쿼터제를 충족하도록 심의에 이러한 지침을 반영하였다.

○ 아동청소년 유형에서 목표로 하는 수요자 층은 유아, 아동, 청소년, 장애인이다. 이들은 성장 단계별로 이해력과 감수성에 큰 차이를 보이므로 각 연령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심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지자체나 다른 공공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사업이나, 예술교육 지원사업, 그리고 생활예술지원 사업 등과의 차별화 필요성도 중요한 심의 방향으로 삼았다.

○ 아동청소년유형에 신청현황을 보면 전체 심의건수의 55%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신청률과 경쟁률을 보였다. 내용 면에서는 유아에 적합한 프로그램부터 청소년에 적합한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단체들이 신청을 하였는데, 아동극을 기반으로 하는 연극분야와 체험적인 요소를 함께 구성한 전통예술 분야가 두드러졌다. 음악의 경우 신청률이 가장 높았으나, 기획성을 담보하지 못한 단순 공연이 많아 아쉬웠다. 성인을 관객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단체들도 있었으나 제출한 영상자료를 근거로 판단한 것이어서, 선정된다면 아동이나 청소년에 맞는 작품을 선택하거나 보유 레퍼토리를 일부 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였다.

○ 신청한 프로그램들의 내용과 구조를 볼 때 어린이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한 경험이 있는 단체들은 신나는예술여행 아동청소년유형 사업을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작품 선정이나 진행방식 면에서 유아, 초등, 중/고등 등 수준으로 성장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연령대에 맞는 작품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성평등이나 젠더 감수성을 주제로 한 신청 사업들이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도 선정 이후 섬세하게 다듬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술위원회는 작품 내용을 분석하고 선정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세분화된 수요자(시설)에 걸맞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조정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 특히 전통예술 프로그램 중 일부는 판소리, 민요, 농요 등에 가사가 들어가 있는데 오늘날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도 다수 있기 때문에, 가사가 있는 전통 음악은 가사에 대한 풀이를 미리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은 반드시 전통예술 프로그램에만 그치지 않고 아동청소년유형 전반에서 필요한 준비라고 판단된다.

○ 최근 몇 년간 신나는예술여행 사업의 구조와 심의방식은 계속 변해왔으며 이는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틀을 바꾸어 온 결과로 보인다. 관련하여, 올해 2021년도 정시공모는 처음으로 진행할 작품을 담은 영상을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심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유용하였다. 다만, 일부 단체들의 경우, 기간이 상당히 경과한 영상이나, 진행할 작품보다는 단체가 가진 레퍼토리를 병렬적으로 소개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차년도 공모에서 미리 제출 내용에 대해 안내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 신나는예술여행은 정식 극장이나 미술관이 아닌 강당이나 야외 등 제반 여건이 열악한 곳에서 진행을 하여야 하므로 기존에 극장이나 미술관을 상정한 기획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난점에 대해서도 예술단체들이 창의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음악분야 등은 상대적으로 제약이 덜 할 수 있는데, 무용은 댄스플로워 등 갖춰야할 것이 많아 학교에서 신청하는 동기부여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신청 단체들도 실내악, 연희 프로그램, 아동극, 인형극이 대부분으로 음악, 전통연희, 연극 등에 비해 무용은 매우 신청률이 저조하다. 장르의 어려움이 노출된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또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신청단체들이 제시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참신하여 기대를 가지게 하는 기획들도 있었으나 아쉬운 사례도 적지 않다. 즉, 전형적이고 상투적인 구성을 제안한 단체들도 적지 않았는데 단체들이 제시한 프로그램들이 서로 비슷비슷한 경우도 많아서 다양성과 참신성 면에서 다소 한계가 느껴졌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려면 일차적으로 예술단체들이 인식을 전환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예술위원회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예를들어, 선정단체들이 모이는 워크숍 등에서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고, 모니터링이나 성과평가 과정에서도 프로그램의 내용을 가장 비중 있게 다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수한 사례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방법도 좋은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청소년유형 심의회의 현장]

2021 신나는예술여행 아동청소년유형 심의위원 일동

심의위원	전 진관 (인)
심의위원	양 호식 (인)
심의위원	서 연호 (인)
심의위원	황 정수 (인)
심의위원	허 병식 (인)
심의위원	김 승현 (인)
심의위원	강 혜진 (인)

Ⅱ. 국민일반 2021년 신나는예술여행 심의진행 경과 및 심사평

ㅇ 일시 : 2021년 12월 16일(수)
ㅇ 장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나주 본관 3층 대회의실
ㅇ 분야 :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문화일반
ㅇ 심의위원 : (문학)김영찬, (시각예술)김정현, (연극)조훈성, (무용)이상헌, (음악)문옥배, (전통예술)김경애, (문화일반)임종우

○ 신나는예술여행 <국민일반유형>은 '노인복지관',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임대아파트' 등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는 복지 및 거주시설에 예술프로그램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국민일반 유형에는 총 69억원을 배정, 127개 단체가 선정되었다. 필수 제출 자료인 동영상을 제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23건이 행정 결격 처리되어 최종 심의건수는 502건이었다.

○ 신나는예술여행 국민일반 유형 분과 심의는 심의위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예술위원회가 정한 심의절차와 공정심의 운영준칙을 설명 듣고 이에 대해 숙지한 뒤 심의회의 4주 전 사무처로부터 전달받은 지원신청서를 전수 검토하고 온라인을 통해 개별적으로 채점을 진행하였다. 이후 최종 심의회의를 통해 7인의 심의위원들의 사전 전수 검토 결과를 확인하고, 평점에 따른 순위를 확인하였다. 그 후 아동청소년 및 특수유형 등 3대 유형 간 지원신청 현황, 수요자의 예상 규모, 평점한 결과의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종합 검토하여, 국민일반 유형에 배정할 적정 예산 수준을 논의하였다. (국민일반 심사일 하루 전 이루어진 특수유형 심사결과에 따른 잔액 3억원을 추가 배정하였음). 아울러, 예술위원회가 정한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지역단체 보장제와 청년단체 쿼터제를 충족하도록 심의에 이러한 지침을 반영하였다.

○ 심의위원회는 신나는예술여행 사업의 목표와 취지인 뛰어난 예술작품을 문화적으로 소외 상황에 있는 국민들에게 전달한다는 점을 중요한 판단근거로 삼았다. 사업의 목표에 비추어 볼 때, 뛰어난 예술을 선정하여 보급하는 것이 가

장 좋은 방향이겠지만, 아무리 뛰어난 예술일지라도 받아들이는 수용자(국민)에게 너무 생소하거나 어렵게 느껴진다면 사업이 목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수요자의 이해도와 수용성 측면과 작품성(예술성) 측면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향유지원 사업의 본질에 비추어 두 가지 방향성이 서로 모순되는 경우, 수요자 수용성 측면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

○ 또한 지자체나 다른 공공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사업이나, 예술교육 지원사업, 그리고 생활예술지원 사업 등과의 차별화 필요성도 중요한 심의 관점으로 삼았다. 프로그램 구성의 충실성과 역량, 예산안 등 적정한 수행계획의 여부 등의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코로나19 확산 시 대응 방안, 즉, 비대면 방식 프로그램 운영 계획도 중요하게 판단 근거로 활용하였다.

○ 전수 사전 검토와 평점 결과를 보면, 높은 평가를 받은 단체들은 공통적으로 예술성 측면 뿐 아니라 수요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다채로운 구성이 돋보였다. 이러한 특장점을 가진 프로그램들이 많이 기획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성과를 공유하고, 세분화된 수요자들에 대한 예술단체들의 연구와 소통이 확대되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제안한다.

○ 예산계획의 경우 예술단체가 제시한 프로그램의 내용 및 규모에 부합하게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함께 회당 예산안을 기준으로 다회차를 순회하는 본 사업의 특수성이 적절하게 고려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일부 단체의 경우 방문시설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인력구성에 따른 사례비 편중, 구성원 간 지나친 사례비 편차, 구체적 근거 없는 필요 이상의 임차료 책정, 회차별 과도한 재료비 책정 등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에 따라 일부 예산 조정을 진행하였다. 선정된 예술단체는 향후 방문시설의 수요에 따라 최종 결정될 사업비를 바탕으로 사무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밀도 있게 사업을 추진해주시길 바란다.

○ 신청단체 중 일부 단체는 활동 경력을 볼 때, 상업적 활동을 오랫동안 지향해 온 단체도 포함되어 있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공공기금의 지원을 받게 되는

본 사업의 특성에 비추어 상업성 보다는 비상업적 기초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우선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업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지나치게 단순하고 협소하게 설정할 수는 없으며, 예술위원회의 문예기금 지원 사업 신청자격에 주식회사 등 상업적 활동 법인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였다.

○ 2020년도까지는 시설을 매칭하여 방문하는 사업의 경우 공연한 실적이 있는 공연으로 제한하여, 이미 검증된 작품(프로그램)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2021년도부터는 기존에 발표실적이 없는 신작 (새로운 기획 프로그램)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방문하는 시설의 이용자와 환경 특성에 맞게끔 새로운 작품을 기획하고, 실험을 시도한 프로그램들도 있었다. 이러한 사업 계획전환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판단되며, 다만 새로운 기획이나 신작들은 향후 모니터링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특히, 방문예정지로써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는 2021년도 처음으로 독립적이고 명시적인 세부 방문지로 제시하였는데,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고민하여 새롭게 작품으로 구현한 예술단체들의 참여가 눈에 띄는 긍정적 변화 중 하나로 인식할 수 있었다. 또한, 타 시설 유형에 비해 가족 모두가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수 신청하는 경향을 보였고 바람직한 방향이라 판단된다.

○ 신청 비율을 시설별로 보면, 단일시설 선택의 경우, 노인복지관,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임대아파트가 각 37.2%, 20.5%, 42.3%, 복수 신청의 경우에는 35.1%, 26.7%, 38.1%로 나타난다. 모두 임대아파트 방문희망이 높았는데, 임대아파트의 경우 시설과 거주 국민의 수가 커서 수요가 많다는 점을 예술단체들이 인식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많은 신청단체가 프로그램 특성상 노인, 다문화가족 등 특정 대상에 적합한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한 개가 아닌 다양한 순회처를 복수신청한 경우가 많았다. 향후 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특정 순회처에 맞게 더욱 집중하여 발전시켜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향후 사업 실행 단계에서 만약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의 수요대비 선정 예술단체의 수가 부족한 상황이 된다면 복수 신청 단체 중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

터 특성에 맞는 단체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방문 사업은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 사업 유형으로 신설한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예술위원회가 각별히 단체들과 긴밀히 함께 고민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 나갈 수 있기를 제안한다.

○ 지원신청내역을 장르별로 보면, 전통예술(35%), 음악(22%), 연극(18%), 다원예술(12%), 문화일반(6%), 무용(6%), 시각예술(2%), 문학(0%)로 나타났다. 노인복지관의 경우에도 실버문화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는데, 노인복지관은 '전통예술이 적절할 것이다' 라는 선입견은 오히려 문화예술을 다양하게 접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선정된 전통예술 단체들에게는 이에 대해 유념해 줄 것을 부탁한다. 워크숍 등을 열어 프로그램에 대한 참신한 변화를 모색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젊은 국악인 및 단체들이 전통에 기반을 두면서도 새로운 시도들을 왕성하게 하고 있고, 그러한 작품들이 이번 공모에도 다수 보인다는 점이다.

○ 신나는예술여행 사업은 수요자의 의향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므로 수요자와 접예술단체 연결(매칭) 단계에서 수요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정된 예술단체들에게도 수요자의 유형별 특징을 연구 조사하고 전파하는 기회를 가져야한다. 이에 대해서 예술위원회가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에 대해 예술위원회가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부탁드린다.

○ 최근 몇 년간 신나는예술여행 사업의 구조와 심의방식이 계속 변해왔으며 이는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틀을 바꾸어 온 결과로 이해하고 있다. 올해 2021년도 심의의 경우 3대 유형별로 각 유형안에서 장르 통합 심의를 진행하였는데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장점이라면, 창작 분야 심의와는 다르게 다양한 장르의 전문가들이 창작자와 수요자 관점에서 교차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이라면 전문 분야가 아닌 다른 장르의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제출자료 수준에서 판단 근거가 제한된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향후에도 예술위원회가 신나는예술여행 사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심의제도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권고한다. (영상자료

를 심의자료로 제출하도록 한 것은 심의의 신뢰성과 효율성 면에서 좋은 방법이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일부 단체의 경우 지원신청서의 프로그램 내용과 불일치하거나 예술적 역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수준의 영상물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기획서에 글로 표현되기 어려운 내용적 측면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향후에는 세심한 자료제출이 필요해 보인다.)

○ 참고로 신나는예술여행 사업 뿐 아니라 예술위원회를 포함, 모든 공공재원 지원사업에서 상업성 정도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특히 신나는예술여행 사업은 작품과 프로그램 기획의 우수성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창작지원 사업과 다르게 수요자의 수용 가능성 정도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어서, 마술, 비보이, 랩 등 대중예술 분야로 분류되곤 하는 프로그램들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수요자의 수용성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상업적 예술에 대한 폭 넓은 수용과 반드시 연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논의와 대비를 지속해 가기를 기대한다.

○ 아러한 대중성, 상업성 문제는 단체의 목적과 법인격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으며 아직은 이에 대해 분명한 방향제시가 없이 서로 다른 법적 유형을 가진 단체들 대부분이 공모에 들어오는 구조인데, 이에 대해서도 추후 추가적인 논의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국민일반유형 심의회의 현장]

2021년 신나는예술여행 국민일반유형 심의위원 일동

심의위원명 : 임 종 두 (서명)

김정현 (서명)

장 영 란 (서명)

(서명)

이 상 원 (서명)

조 옥 성 (서명)

곽 동 배 (서명)

심의위원명 : 신 경 애 (서명)

* 비대면(온라인)방식으로 심의회의 참여

Ⅲ. 특수 2021년 신나는예술여행 심의진행 경과 및 심사평

ㅇ 일시 : 2021년 12월 15일(화)
ㅇ 장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나주 본관 3층 대회의실
ㅇ 분야 :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문화일반
ㅇ 심의위원 : (문학)노대원, (시각예술)김찬동, (연극)남지수, (무용)민현주, (음악) 이형근, (전통예술)김광희, (문화일반)조새미

○ 신나는예술여행 특수유형은 교정시설, 군부대, 하나원 등 일반사회와 격리되어 문화예술 향유가 어려운 곳에 예술프로그램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올해 특수유형에는 총 55억 4천 9백만 원을 배정, 101개 단체를 선정하였다. 신청건수는 269건이었고, 필수 제출 자료인 동영상을 제출하지 않은 3건이 결격 처리되어 최종 심의건수는 266건이었다.

○ 신나는예술여행 특수유형 분과 심의는 심의위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예술위원회가 정한 심의절차와 공정심의 운영준칙을 설명 듣고 이에 대해 숙지한 뒤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심의를 진행하였다. 먼저, 사무처에서 사전에 지원신청서와 영상을 전달받아 전수검토서 작성과 가채점을 진행, 최종 심의회의에서 중점 고려사항들을 점검하였으며 합산총점에 따른 순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신나는예술여행 사업이 3대 유형으로 추진되므로 유형 간 지원신청현황, 수요자의 예상규모, 평점결과의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종합 검토하여 특수유형에 배정할 적정 예산 수준을 논의하였다.

○ 특수분야는 교정시설, 군부대, 하나원, 병원, 산업단지 등 특수한 상황 때문에 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예술 소외층을 찾아가는 유형이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 기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요자의 생활환경과 기호에 맞도록 충실하게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인식하여 심의를 진행하였다.

○ 특수분야는 단일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다회차 순회를 하는 방식과, 축제형 방식(산업단지 방문 축제)으로 구분되는데 단일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다회차 순회를 하는 방식의 사업들은 교정시설, 군부대, 하나원 등 크게 다른 성격을 가진 각각의 세부 시설과 수요자에 맞는 프로그램인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또한, 내용적인 측면 뿐 아니라 접근성이나 시설의 물리적 환경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기획에 반영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로 반영하였다. 예를 들어 하나원 신청사업의 경우 한국문화와 언어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획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등 수감자, 군인, 탈북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는 신청 사업에 높은 평점을 부여하였다.

○ 방문시설로서 교정시설, 군부대, 하나원을 기획한 많은 신청 사업들이 해당 시설의 상황과 수요자의 선호도를 반영하고자 고심한 결과가 보이며, 이러한 수요자 지향 정도와 예술로 얻을 수 있는 감동과 정서 치유 효과를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 다회차 순회를 하는 사업과 달리 축제형 사업(산업단지 방문 축제)은 다양한 유형의 세부 프로그램을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하나의 큰 축제를 구성하는 것이어서 세부 프로그램의 내용, 참여단체, 섭외 여부 등을 분명하게 제시하여야만 타당성과 기대효과를 갖추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축제사업 신청서 상당수가 이를 충실하게 제시하지 못하여 심의평가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기간, 규모, 내용의 불확실성이 높아 지원 타당성 여부와 소요예산의 적정성 정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였다.

○ 축제형 방식(산업단지 방문 축제)은 산업단지에 속한 개별 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산업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축제형을 목표로 한 유형이어서 단순히 1~2개의 공연, 전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일방적인 감상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획안은 제시한 방향과 맞지 않고 기대효과도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기획들보다는 산업단지가 가진 역사와 입주기업들의 특성을 조사하여 감상형 뿐 아니라 참여형, 체험형도 포함하고 공연, 전시형식 등 다채로운 접근을 계획한 사업들에 높은 평가를 하였다. 일부 신청 사업의 경우 대형 공연(콘서트, 오페라, 뮤지컬

등)을 제안하였으나 산업단지의 맥락에 맞는 종합적인 참여형 축제를 의도했던 공모 방향에 비추어 기획의도와 내용면에서 다소 거리가 있었다.

○ 산업단지형은 공모안내문에도 복합적인 축제형이 적합하다고 명시하였으나, 1회 단건 공연을 계획하여 신청한 단체들이 있었으며 이러한 단체들은 당초 제시한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규모 산업단지 종사자들이 일정 기간 이상 참여하는 형태의 사업계획 수립 여부와 산업단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지, 산업단지 종사자나 가족들이 참여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였거나 향후 보완한다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검토하여 판단하였다.

○ 단일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다회차 순회를 하는 방식의 사업들은 감상형인 경우가 많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으나, 축제형의 경우에는 현장 참여가 강점으로 대면 방식이 불가능할 경우 추진 근거가 약해지고 축제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신청단체 중 대다수가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대면 방식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축제현황을 온라인 영상, 키트 제작, 전시 등으로 전환하는 방식 등을 제안하고 있으나 작성 내용이 전반적으로 비슷하고, 관련 설명도 부족하여 신나는예술여행이 예술소외층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기대효과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미흡한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산업단지 유형의 경우에는 신청 시 제출한 비대면 전환 계획에 대해 대폭 보완과 수정이 필요해보이며 사업 초기부터 비대면 전환에 대한 기획이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은 채로 대면 축제 진행이 전면 불가능할 경우가 지속될 시 가급적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 병원 대상 공연형 신청 사업들은 클래식부터 전통예술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바탕으로 한 로비 콘서트 기획이 대부분이었으며, 내용과 추진 방식에서는 적합한 기획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평가할 수 있었다.

○ 병원 전시형 신청 사업들은 기획 방향과 전시작품의 구성 면에서 타당한 기획들이 있었으나 방향과 내용 면에서 타당할 지라도 소요예산의 편성, 전시기간이나 참여방식 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신청 사업에 대

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지원금 수준을 제안하였고, 추후 사업을 수행한다면 각 병원 공간에 적합할 전시기획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환우와 의료진들에게 더 큰 감동을 전할 수 있도록 병원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최종 심의 결과, 신청단체 수와 평점 평균에 비추어볼 때 사무처가 예상한 당초의 예산 배정 (1차 안) 수준보다는 낮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당초 73억원에서 17억원 5천만원 가량이 감액된 55억 4천9백만 원을 특수유형 배정예산으로 최종 결정하고 지역최소 보장제, 청년단체 쿼터제를 고려하여 총 101개 단체(단일형 83개 단체, 병원전시형 7개 단체, 산업단지 11개 단체)를 선정하였다. 잔여예산은 신청단체와 수요자 인원이 많은 아동청소년, 국민일반 유형에 추가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 단체별 예산은 사례비의 불균형이나 계획 대비 임차료, 용역비, 여비 등에서 사업규모에 적정하지 않은 편성을 검토하여 조정하였다. 사업 참여도와 역할이 각각 다르겠지만 전체 사례비 비중 중 특정 인원에게 대한 책정이 과하거나 적은 경우들이 있었고 예산 편성 근거에 대해 신청서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은 단체들이 있었다. 예산계획은 신청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보여주는 지표임을 참고하길 바란다. 또한, 제출영상이 기획에 대한 설명, 소개보다는 단순 단체소개에 가깝거나 아예 다른 프로젝트 영상을 제출한 단체들도 있었는데 향후 지원 시에는 서류로는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 제출에도 유의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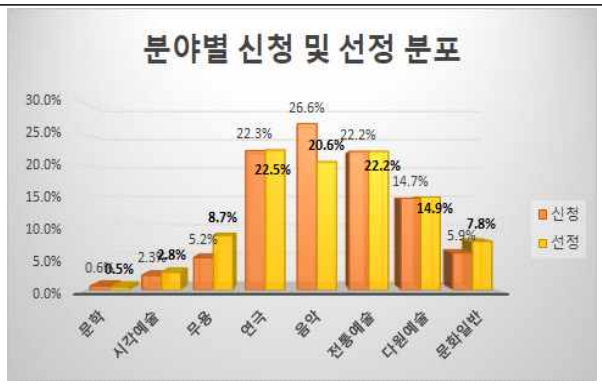
○ 신나는예술여행 사업은 수요자의 의향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므로 사업계획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수요자의 신청접수와 연결(매칭) 단계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정된 예술단체들에게도 수요자의 유형별 특징을 연구 조사하고 전파하는 기회를 가져야 하며 이에 대해서도 예술위원회가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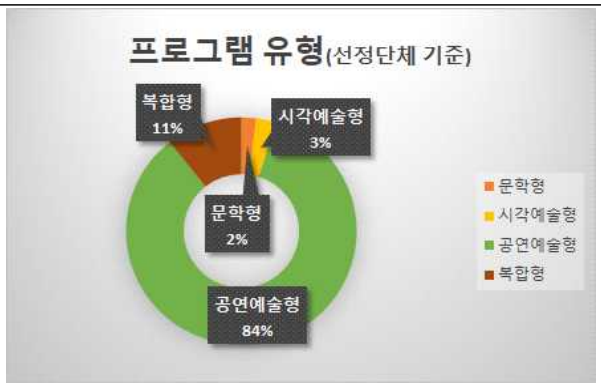
[특수유형 심의회의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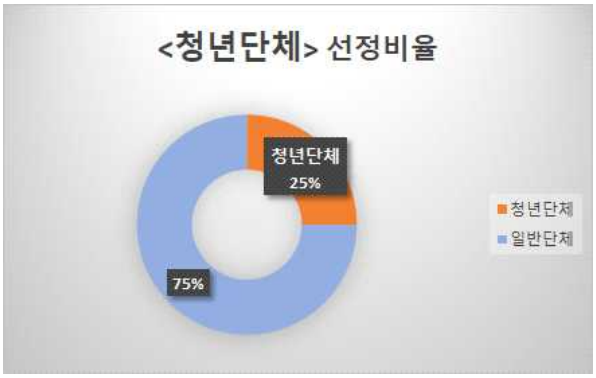
2021년 신나는예술여행 특수유형 심의위원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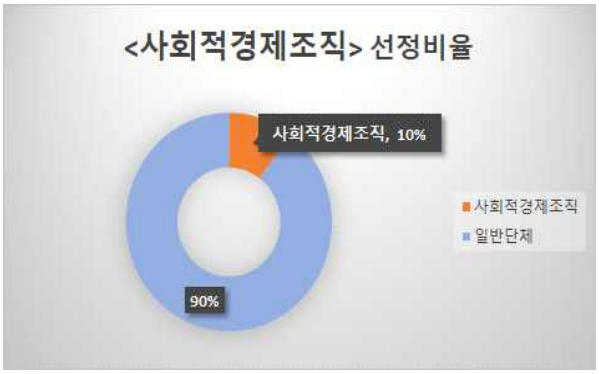
심의위원	남지두 (인)
심의위원	조새암 (인)
심의위원	이 형구 (인)
심의위원	노새원 (인)
심의위원	김 광태 (인)
심의위원	김 찬 동 (인)
심의위원	민 철국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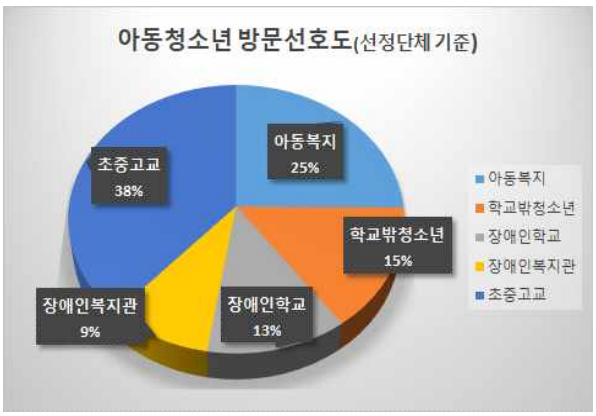
심의 통계	한 눈에 보는 2021년 신나는예술여행 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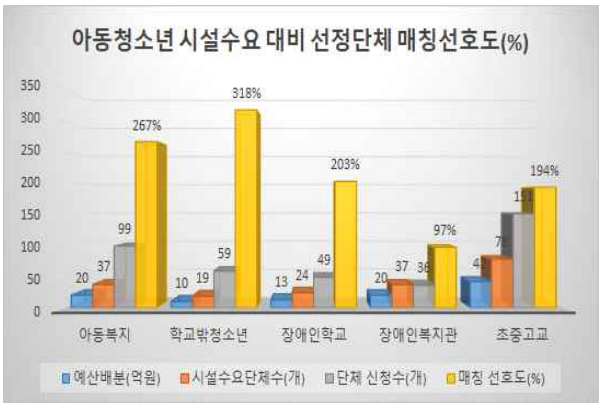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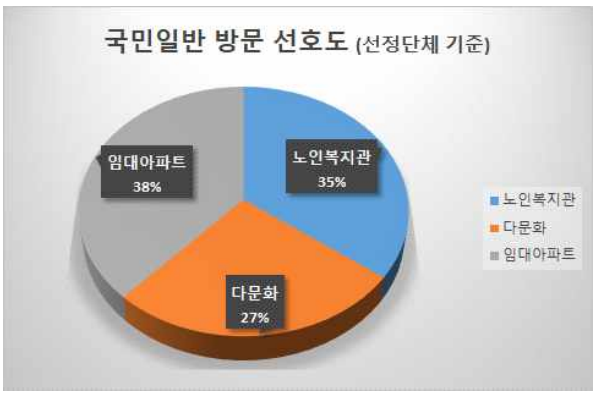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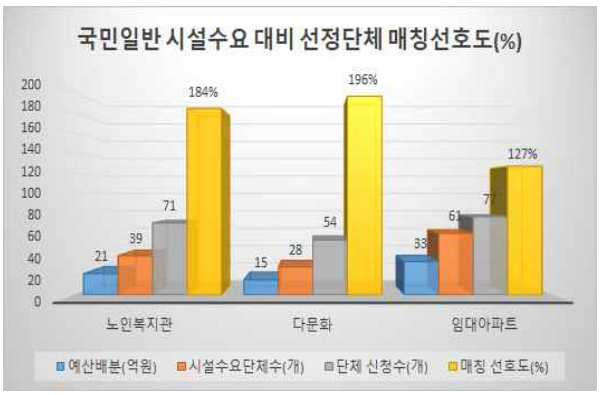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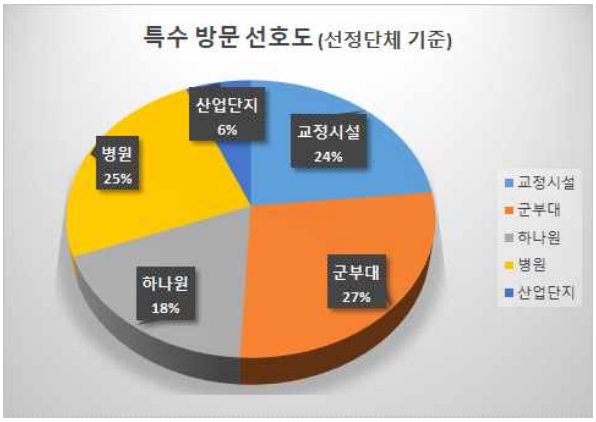












* 매칭선호도 : 시설수요 대비 선정 예술단체 방문신청률(복수신청포함)